

민생경제 **희망**찾기

도민 대토론 한마당 자료집

일시: 2005년 12월 6일(화) 10:00~17:00

장소: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다목적실

주최: 제주도 · 제주발전연구원

주관: 제주상공회의소·제주발전연구원

후원: 제주은행,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진행순서

■ 등록 : 09:30 ~ 10:00

■ 개회식 : 10:00 ~ 10:40

- 개회사: 고부언(제주발전연구원장)
- 인사말씀: 강영석(제주상공회의소 회장)
- 격려사: 김태환(제주도지사)
- 축사: 양우철(제주도의회 의장)
- 기조강연: 김세원(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주제: 국·내외 및 제주도의 경제상황 진단

■ 휴식: 10:40 ~ 10:50

■ 제 1 부: 민생경제 희망찾기 성공사례 발표(10:50 ~ 12:20)

- 발표: 성공사례 9개업체
 - 강영덕 (효창농장)
 - 오영덕 (들꽃농장)
 - 오원국 (나무와손)
 - 고찬석 (대석엔지니어링)
 - 김영남 (제주김녕미로공원)
 - 안정숙 (연우네)
 - 이경옥 (플라워몰)
 - 한효심 (한효심 휘트니스센터)
 - 현상무 (큐텔소프트)

■ 오찬: 12:20 ~ 13:30

■ 제 2 부: 민생경제 애로사항 발표 및 토론 (13:30 ~ 15:00)

- 좌 장: 고부언(제주발전연구원장)
- 주제발표: 고철수(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민생경제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지정토론자
 - 강인선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 회장)
 - 김영후 (중소기업기술혁신협의회 제주도지부 부회장)
 - 유창남 (서귀포시아케이드상점가 진흥 협동조합 이사장)
 - 이성하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제주지회 경영지도사)
 - 이준영 (재래시장연합회 회장)
- 자유토론

■ 휴 식: 15:00 ~ 15:20

■ 제 3 부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15:20~17:00)

- 좌 장: 고부언(제주발전연구원장)
- 지정토론자
 - 김 인 환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원장)
 - 김 철 빈 (수출유망중소기업협의회 회장)
 - 문 정 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회장)
 - 서 인 수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박사)
 - 양 만 식 (제주도 재정경제국장)
 - 양 세 완 (21C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장 동 훈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운영위원)
- 자유토론

■ 폐 회

개 회 사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 도민 대토론 한마당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님과 양우철 제주도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토론회에 아낌 없는 지원과 협력을 주신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인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민생경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경제침체의 장기화가 자칫 도민들의 희망의지마저 앗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침체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진단과 극복방안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주는 타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경제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론적이고, 지나치게 장기적인 대안들은 도민들의 호응과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의 도민 대토론 한마당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제주지역 민생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도민, 관련 전문가, 정책당국자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진지하면서도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공을 이루어낸 분들의 다양한 노하우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름대로의 능력과 가능성에도 잠시 좌절하고 있는 분들의 고충과 어려움도 솔직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위기뒤에 기회’라는 말을 믿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제주지역 민생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기 위한 도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급변하는 내·외부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들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제주지역 민생경제의 희망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로 의미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본 도민 대토론회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희망의 실타래를 잡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제주발전연구원장 고 부 언

인 사 말 씀

제주도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희망찾기 도민 대토론 한마당’의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님과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 대토론회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님과 기초강연을 맡아주신 김세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발표자님과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들어 각종 지표상에는 제주 지역경제가 서서히 침체에서 벗어나는 신호가 보이고 있으나 우리 상공인들이 피부로 접하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찬바람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특별자치도의 시행 등으로 경제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 중소 영세 상공인들의 대응책 마련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민생경제 희망찾기 도민 대토론 한마당’에서는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되고 이를 통해 경제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법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도민 대토론 한마당에는 경제침체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의 성공사례와 함께 민생경제의 애로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다루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건설 등을 비롯한 제주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역할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민생경제에서부터 희망이 나오고 활력이 발생해야 제주도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도민 대토론 한마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어주길 희망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민생경제 희망 찾기 도민 대토론 한마당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강 영 석

격려사

오늘 우리는 민생경제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과 지역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고, 제주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님, 강영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참석해 주신 양우철 도의회 의장님과 기조강연을 해주실 김세원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는 “밀바닥 경제를 다함께 살려보자” 하는 뜻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체를 아끼는 마음을 모으고, 손에 잡히는 희망을 마련함으로써 공존 공생하는 공동운명체의 길을 걸어 나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국가경제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12% 이상 수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총생산 증가율도 올해 상반기에 3%였던 것이 하반기에 4.6%, 그리고 내년에는 5%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주요지표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주경제도 수치로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올해 농수산물 출하액은 지난해와 대비해서 20%, 관광객도 2.2% 증가했습니다. 건설수주액은 7%, 대소형 매장매출도 3% 증가하는 등 제주 경제도 호조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둔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상재정 10%를 절감하는 등 800억원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도정도 깊이 되새기고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한 두해 사이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위기보다는 기회가 더 많이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1차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이 기대되고, 제주항공의 출범과 내년 제주방문의 해,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류열풍을 몰고 올 국제적 드라마 촬영이 예정되면서 획기적인 관광수요도 예상됩니다.

또한 BT·IT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경제현장에서 새로운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실시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더욱 많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도가 좌절하지 않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여 지속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까지는 도정 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 상공인을 비롯한 도민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노력하는 자세 등이 그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취지를 살려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민생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토의가 이루어져 제주경제는 물론 여러분 모두의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도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제주도지사 김 태 환

축 사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님, 강영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님,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님,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과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추위는 있어도 마음으로 느끼는 추위는 없어야 할 터인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제가 좋아져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처럼 경제회복에 대한 도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민생경제 희망찾기 도민 대토론 한마당이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부언 원장님을 비롯한 제주발전연구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경제는 IMF 이후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청년실업과 산업구조의 변화, 2차 산업의 저조 등으로 1차 산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감경기는 참으로 어렵게만 느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열리는 『민생경제 희망찾기 도민 대 토론 한마당』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학계와 경제계, 소상공인이 하나가 되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행사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절반의 희망은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절반도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덩달아 도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나머지 절반의 희망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기업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도의회도 여러분들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이 행사가 탄탄한 지역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성취가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제주도의회 의장 양 우 철



기 조 강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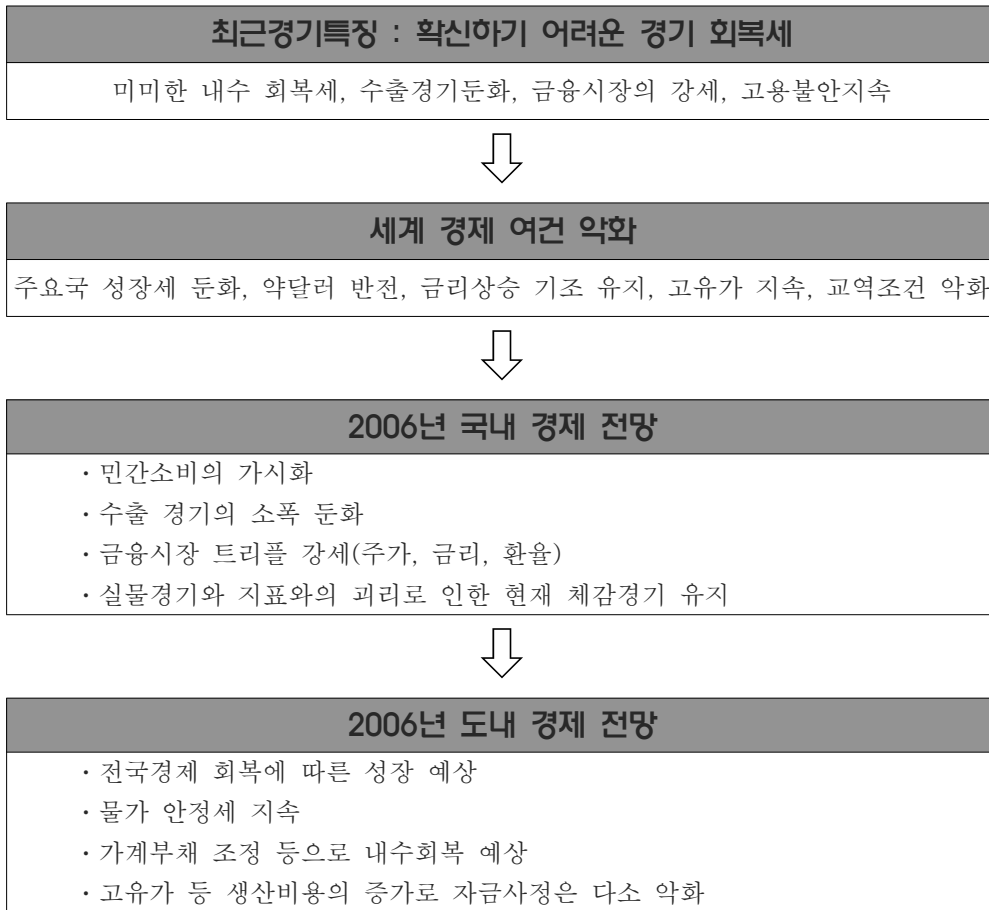


국·내외 및 제주도의 경제상황 진단

김 세 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내외 및 제주도의 경제상황 진단



1. 현 경기 판단과 2005년 국내외 경제 동향

(1) 현 경기 판단 : 확신하기 어려운 경기 회복 국면

- 2000년 8월부터 지속되던 최장기 경기 하강국면이 2005년 6월을 기점으로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있으나, 회복 강도가 미약하여 향후 경기 상승세

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6개월 후의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5개월 연속 상승세에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함.

(2) 2005년 국내 경제의 동향

- 미미한 내수 회복세 : 최근 내수 부문이 소폭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회복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내수 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4	2005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도소매판매지수	-0.9	-1.0	2.6	3.6	2.8	2.9	5.1	2.7
설비투자추계지수	1.4	4.0	1.4	0.5	-3.1	4.2	-0.7	-2.0

자료 : 통계청

- 수출경기 둔화 : 2004년 31.0%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수출은 2005년에 들어 주요 수출 품목과 대미수출 부진으로 10%대의 증가세로 둔화되었으나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수출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4	2005년				
			1/4	2/4	8월	9월	1~9월
수출		31.0	12.7	9.0	18.1	18.7	12.4
품목	자동차	39.0	30.3	18.8	-0.1	-19.8	16.0
	반도체	35.7	20.2	7.7	15.4	18.2	14.3
지역	중국	41.7	23.7	23.6	32.5	24.5	24.2
	미국	25.2	10.7	-12.6	-6.3	-17.0	-4.6

자료 : 산업자원부

- 금리와 주가는 경기회복 기대 확산 등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환율은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와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시중 자금 및 금융 지표 추이>

구 분		2004	2005		
			1/4	2/4	3/4
자금	단기부동자금(조 원)	405.2	414.5	440.1	-
금리	국고채 3년(%)	3.28	3.91	4.02	4.60
주가	거래소주가	895.9	965.7	1,008.2	1,221.0
환율	원/달러	1,035.1	1,015.5	1,025.4	1,041.1
	엔/달러	102.56	107.15	110.92	113.01
	원/엔	10.12	9.52	9.27	9.19

자료 :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 주 : 1) 기말 기준이며, 단기부동자금은 6개월 미만의 금융수신을 의미함.
- 2) 엔/달러, 원/엔 환율은 9월 29일 기준임.

- 고용 불안 지속 : 미흡한 경기 회복세와 투자 침체 지속 등으로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 고용의 질 등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더욱 악화됨.

<주요 고용 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4	2005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실업률(%)	3.7	4.2	3.7	3.6	3.6	3.7	3.6	3.6
청년실업률(%)	8.3	9.0	7.8	7.6	7.8	8.3	7.4	7.2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	6.8	16.3	-3.2	15.1	-1.8	14.5	53.0	-29.5
구직단념자(만명)	10.0	12.6	11.0	13.7	11.4	14.1	14.8	12.3

자료 : 통계청

(3) 2005년 세계 경제 동향

- 주가 : 미국 주가는 9월 중순 이후 10,500p 수준에서 횡보하다가 10월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증대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로 하락하고 있고, 유로지역 주가는 9월 중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10월 들어 미국 주가와 동조하며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일본 주가도 경기회복 기대, 총선 이후 개혁 가속 전망 등으로 10월 초 4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였음.
- 금리 : 9월 초 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4% 부근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및 FRB(미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 지속 예상 등으로 상승하였음.
- 환율 : 유로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로지역의 성장격차 확대, 독일 총선 이후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강세(10월 들어 약보합)를 보이고 있으며, 엔화에 대해서도 미·일 금리격차 확대 예상 등으로 강세를 보임.
- 유가 : 9월 중순 이후 허리케인 리타(Rita)에 따른 석유시설 피해, 미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10월 들어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석유수요 둔화 예상 등으로 하락하고 있음.
- 원자재 : 소맥 및 원면가격은 9월 중 수요증가 및 수확차질 예상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으며(10월 들어 소폭 하락), 동 및 알루미늄 가격은 일부 광산 파업소식, 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함.

2. 2006년 국내·외 경제 전망

(1) 2006년 세계 경제 전망

- 세계 주요국 성장세 둔화 : 2006년 세계 경제는 일본, 유로 지역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전체 성장률은 2005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칠 것임.

<2006년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E)	2006(E)
세계	4.0	5.1	4.3	4.3
미국	2.7	4.2	3.5	3.3
E U	1.3	2.5	1.6	2.1
일본	1.4	2.7	2.0	2.0
중국	9.5	9.5	9.0	8.2

- 약세 달러 반전 : 2005년 다소 개선 조짐을 보이던 미 쌍둥이(무역적자, 재정적자) 적자가 2006년 중으로 예상되는 미국경기의 하강세로 다시 악화될 우려가 높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외환 부유고 통화 다변화 가능성으로 약세 반전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투자 은행들의 환율 전망>

(단위:엔, 달러)

구 분	2005		2006	
	3/4분기	4/4분기	2/4분기	3/4분기
엔/달러	113.5	106.9	105.3	101.6
달러/유로	1.2026	1.2586	1.2600	1.2800

주: 투자은행 12개사의 평균치임

- 고유가 지속 : 석유 수요 확대, 산유국들의 석유 채굴 능력 저하 등으로 수급 불일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져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CER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달러/배럴)

비 고	기존 유종	2004년	2005년(E)	2006년(E)
기존유가	Dubai	33.69	51.73	49.00
	Brent	38.26	57.06	53.00
	WTI	41.49	58.55	54.50
고유가 (공급부족)	Dubai	33.69	53.38	72.75
	Brent	38.26	59.20	80.25
	WTI	41.49	60.63	81.75

- 금리 상승 기조 유지 : 미 FRB는 2006년에도 고유가에 따르는 물가 불안 우려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미 시장 금리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요국 금리도 상승하는 등 세계적인 금리 상승 추세가 진행될 전망이다

<주요국 단기 금리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03	2004	2005(E)	2006(E)
미국	1.0	1.4	3.1	4.2
E U	2.3	2.1	2.1	2.4
일본	1.2	1.8	3.6	4.5

자료 : CERA : 미 캠프리지에너지연구소

주 : 전망 시점은 8월 30일

(2) 2006년 국내 경제 전망

가. 2006년 경제 전망의 개요

-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어 2005년 3.8%, 2006년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5~2006년 경제 전망>

구 분		2004	2005		2006(E)	
			상반기	연간(E)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4.6	3.0	3.8	4.5	
	최종소비지출(%)	0.2	2.3	2.6	3.6	
	민간소비(%)	-0.5	2.0	2.5	3.5	
	총고정자본형성(%)	1.9	1.2	3.1	3.1	
	건설투자(%)	1.1	-0.2	0.5	1.5	
	설비투자(%)	3.8	3.0	4.3	5.5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276	87	140	8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억 달러)	294	125	230	120
		수출(억 달러)	2,538	1,366	2,800	3,070
		수출 증가율(%)	31.0%	10.8%	10.3%	9.0%
		수입(억 달러)	2,245	1,241	2,570	2,950
수입 증가율(%)	25.5%	14.8%	14.5%	14.8%		
기타	소비자물가(평균, %)	3.6	3.1	3.0	3.2	
	실업률(%)	3.7	4.0	3.6	3.5	
금융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45	1,015	1,020	1,010	
	국고채금리(평균, %)	4.1	3.9	4.2	4.6	

나. 2006년 국내 경제의 전망

- 완만한 내수 회복 : 그동안의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투자는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소비 및 소비여건 지표 추이>

(%)

구분	2003	2004	2005		
			1/4	2/4	3/4
도소매판매증가율	-1.0	-0.9	-1.0	11.0	3.9
제조업임금상승률	8.8	9.9	8.4	11.0	-
실업률	3.6	3.7	4.2	3.7	3.7
가계부채/GDP	61.8	61.0	59.6	61.4	-
CSI(통계청)		74.2	110.4	92.2	90(8월)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1) 2005년 3/4분기는 7~8월 평균

2) 2005년 분기 가계부채/GDP 비중은 추정치임.

- 대상 지역별 수출 경기 차별화 : 세계 교역량 증대로 전반적인 수출 여건은 좋은 편이나 지역별로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은 부진한 반면 브릭스(BRICs) 지역에 대해서는 호조를 보이는 수출 경기 차별화 현상이 예상된다.

<수출 및 수출 선행 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1~9	2006(E)
수출증가율	-12.7	8.0	19.3	31.0	12.4	9.6
수입증가율	-12.1	7.8	17.6	25.5	16.7	14.8
경상수지	80	54	119	276	97	80
OECD 경기 선행지수	-3.0	2.6	2.9	3.7	0.3(1~8월)	-
세계교역량 증가율	0.2	3.3	4.9	9.9	7.4	7.6

자료 : 산업자원부, IMF, OECD

주 : 1) 세계 교역량 증가율의 2005년 및 2006년 수치는 IMF 전망치임.

2) OECD 경기선행지수는 기말 기준임.

○ 금융 시장 트리플 강세 속 불안 요인 증가 : 부동산 투기 억제책 및 물가 안정에 따른 금융자산 수요 증가,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으로 주가, 채권, 원화의 트리플(Triple) 강세가 나타날 전망

○ 남북 경협 한 단계 성숙 : 2006년 남북 경제 협력 관계는 경협의 제도화와 인프라 개선, 개성 공단 개발 사업의 본격화 등으로 남북간 교역 증대가 예상된다.

<남북 교역 및 북한 경제 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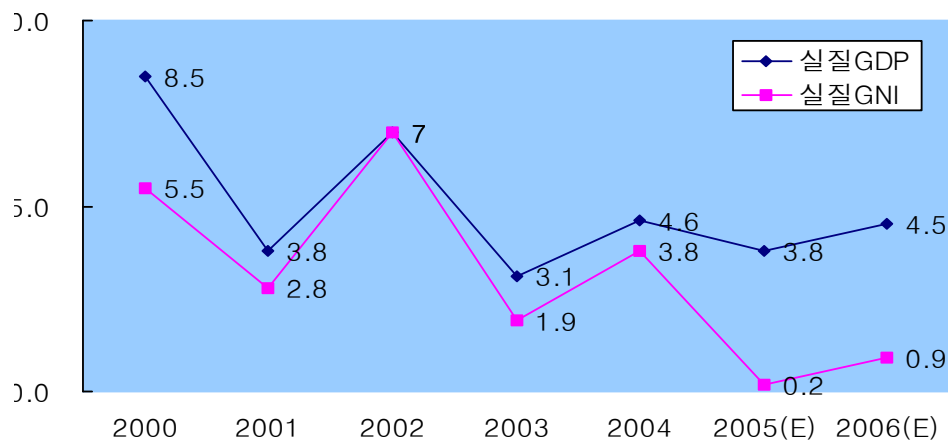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8
교역액(억 달러)	4.25	4.03	6.42	7.24	6.97	5.81
교역 증가율	27.5	-5.2	59.3	12.9	-3.8	34.4
북한 경제성장률	1.3	3.7	1.2	1.8	2.2	-
북한 1인당 GNI(달러)	757	706	762	818	914	-

자료 : 통일부, 한국은행
주 : 반입과 반출 합계임.

○ 체감하지 못하는 경기 회복 : 2006년은 내수 경기 회복 등으로 외형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고유가 지속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미흡으로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GDP 및 실질 GNI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IMF Database
주 : 2005년과 2006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3. 제주경제의 현재 동향

(1) 경제 일반 동향

- 제주지역 GRDP는 전국 GRDP에서 약 0.9%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는 '03년 현재 약 1,270만원으로 전국 1인당 GRDP의 83% 수준임.
- 최근 제주지역 GRDP가 전국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오히려 '95년 수준(1.023%)보다 하락하였다는 것은 제주지역 경제의 양적규모가 정체되어 있으며 '95년 수준보다는 오히려 작아졌음을 의미함.

<지역내총생산(GRDP)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 추이>

구 분	GRDP(단위: 백만원)		B/A(%)	1인당 GRDP(단위: 원)		B/A(%)
	전국(A)	제주(B)		전국(A)	제주(B)	
2000	577,970,942	5,289,484	0.915	12,295,132	10,090,930	82.1
2001	620,905,233	5,591,249	0.900	13,112,124	10,594,122	80.8
2002	685,946,405	6,301,741	0.919	14,406,059	11,846,269	82.2
2003	731,626,781	6,785,510	0.927	15,290,253	12,706,733	83.1

자료: KOSIS

주1: 지역내총생산(GRDP)=지역내총부가가치+ 순생산물세

주2: 조세-정부보조금

-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2차산업은 3%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차산업인 경우 90년 초반에는 30%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점차 하락세를 보이면서 '03년 14.5% 수준을 보임. 반면 3차산업인 경우 90년 초반에는 59%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03년 73.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제주지역 지역내총생산에서 산업부문별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순생산물세
2000	19.5	3.1	68.8	8.7
2001	14.6	2.7	73.4	9.3
2002	14.7	3.0	72.0	10.4
2003	14.5	2.7	73.0	9.8

자료: KOSIS

주1: 2차산업은 광업+ 제조업으로 정의함.

주2: 조세-정부보조금

(2) 생산부문

가. 농업

-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제주지역 농산물 출하액은 약 3,670억원으로 작년 동기 간 약 2,944억원 대비 24.7% 증가하였음.
-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90년대 중반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농업은 최근 감귤유통명령제, 감귤원 폐원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농산물 출하액 증가등과 같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음. 그러나 향후 DDA, FTA 등 많은 대외적 환경들로 인해 제주농업은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목표아래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향후 제주농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되어짐.

<제주지역 농산물 출하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4. 9월까지	2005 9월까지
농산물출하액	430,131	440,211	452,811	465,190	507,278	294,382	366,963
전년동월비	-15.2	2.3	2.9	2.7	9.0	-	24.7

자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주: 실질 농산물출하액임.

나. 제조업

- 제주지역 지역내총생산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현재 2.7%에 불과함.

- 그러나 한국은행 제주지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불과하나 총 산출액은 9.3%로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 산업비중에 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제주지역에서 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타지역과의 교역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데다 협소한 도내 수요로 인해 제조업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그러나 제조업은 중간수요가 커 도내 생산물과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경우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위상도 제고되어야 됨**.
- 2000년 이후 다소 증가세를 보이던 제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2004년 전년대비 6.5% 하락세를 보이며 감소하였음. 이러한 감소세는 2005년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주지역 전체 제조업 중 약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료품 중심의 소비재 제조업 생산의 큰 폭 하락에 기인함.
- 그러나 2005년 3분기 이후 음식료품 중심의 소비재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제주지역 제조업지수 및 소비재 제조업지수>

(2000=100)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4	2/4	3/4
제조업지수 (원지수)	100.0	100.5	103.7	114.6	107.2	87.1	89.3	89.4
전년동기비	-	0.5	3.2	10.5	-6.5	-24.2	-3.9	3.1
소비재	100.0	102.5	110.9	122.5	97.3	86.1	97.0	94.8
전년동기비	-	2.5	8.2	10.5	-20.6	-12.1	-4.9	0.9

자료: 통계청
주: 원지수임

*, ** 제주 MBC·(사)제주학회, 「제주 MBC 창사 36주년 특별기획 제주경제의 도전과 과제」, 2005년 1월

(3) 관광부문

- 2005년 9월 현재 관광객 수는 내국인인 경우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하였으며, 반면 외국인인 경우 동기간 17.1% 증가하였음. 그러나 관광객 전체로는 전년 동기대비 0.1% 감소하였음.
- 2005년 9월 현재 관광수입은 내국인인 경우 전년 동기대비 4.8% 감소하였으며, 반면 외국인인 경우 동기간 11.1% 증가하였음. 그러나 관광수입 전체로는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하였음.
- 관광객 수의 감소폭 혹은 상승폭보다 관광수입의 감소폭은 더 크고 상승폭(외국인인 경우)은 더 작게 나타남으로써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추이>

년도	(단위:천명, %)						(단위:억원, %)					
	내국인	전년비	외국인	전년비	합계	전년비	내국인	전년비	외국인	전년비	합계	전년비
2000	3,822		288		4,110		1,087,9		409,6		1,497,6	
2001	3,907	2.2	290	0.6	4,197	2.1	1,059,4	-2.6	391,5	-4.4	1,451,0	-3.1
2002	4,226	8.2	289	-0.2	4,515	7.6	1,087,4	2.6	352,4	-10.0	1,439,9	-0.8
2003	4,689	11.0	221	-23.7	4,910	8.8	1,195,4	9.9	236,2	-33.0	1,431,6	-0.6
2004	4,603	-1.8	329	49.0	4,932	0.4	1,149,3	-3.9	325,5	37.8	1,474,9	3.0
	내국인 누계	전년 동기비	외국인 누계	전년 동기비	합계 누계	전년 동기비	내국인 누계	전년 동기비	외국인 누계	전년 동기비	합계 누계	전년 동기비
2004.9	3,569		234		3,804		891,5		237,1		1,128,7	
2005.9	3,526	-1.2	275	17.1	3,801	-0.1	848,9	-4.8	263,5	11.1	1,112,4	-1.4

자료: 제주도관광협회

주: 실질수입액임.

(4) 건설투자부문

-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면적의 두 지표는 경기선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지표임. 건설수주액인 경우 2005년 9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한 반면 건축허가면적인 경우 동기간 7.4% 감소하였음. 이 두 지표만으로도 제주지역의 현재의 경

기는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부문과 부정적인 부문이 혼재되어 있다 할 수 있겠음.

- 또한 건설부문은 고용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건설부문의 활황은 실업률의 감소와 소비촉진을 동반함. 따라서 건설부문의 침체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건설수주액 및 건축허가면적 추이>

(단위: 억원, %, 천㎡)

년도	건설수주액	전년비	건축허가면적	전년비
2001	5,383		1,270	
2002	7,273	35.1	1,784	40.5
2003	9,869	35.7	2,080	16.6
2004	4,812	-51.2	1,167	-43.9
		전년동기비		전년동기비
2004.9	3,317		746	
2005.9	3,465	4.5	691	-7.4

자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KOSIS

주: 실질금액임

(5) 소비부문

가. 대중소형매장매출액

- 제주지역 대·중·소형매장 매출액인 경우 9월 현재 약345억원(실질)으로 전년동월 약 2.5% 하락하였음. 그러나 전년동기대비로는 2,942억원(실질)으로 작년 2,934억원(실질)대비 약 0.3% 증가하였음.

<대·중·소형매장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0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대·중·소형 매장 매출액	31,868	33,659	30,071	31,301	33,382	31,556	33,333	34,500	34,524
전년동월비	-11.3	13.1	-0.5	4.3	3.1	3.3	-1.9	-1.9	-2.5

자료: 한국은행제주본부

주: 실질금액임

나. 신용카드이용실적

- 제주지역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보면 9월 현재 현금서비스는 약345억원(실질)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21.6% 하락하였으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구매는 약617억원(실질)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10.7% 증가하였음.
- 전년 동기대비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현금서비스인 경우 3,314억원(실질)으로 전년 동기간 4,516억원보다 약 26.6% 감소하였으며, 상품구매인 경우 올해는 5,369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5,520억원(실질)으로 대비 약 2.7% 감소하였음.
-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구매인 경우 대개의 소비자들은 향후 소득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경기선행의 의미를 갖고 있어 이러한 지표가 증가하고 있음은 향후 제주지역 경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지표라 할 수 있음.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단위: 10억원, %)

구 분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용 실적	현금서비스	39.7	36.9	39.1	36.6	37.9	36.4	34.6	35.8	34.5
	상품구매	62.1	57.9	54.9	57.4	60.5	61.0	58.4	62.9	61.7
전년 동월비	현금서비스	-30.5	-31.0	-27.0	-26.8	-24.3	-25.6	-26.9	-24.1	-21.6
	상품구매	-4.7	-7.5	-12.2	-6.4	-1.3	-1.5	-5.6	5.8	10.7

자료: 한국은행 제주본부

주: 실질금액임

(6) 고용부문

- 2000년 이후 제주지역 실업률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15~29세로 대표되어지는 청년실업률인 경우 전년동기간 대비 감소하고 있

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높아 그 심각성이 더해짐. 청년실업률의 문제는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높음.

< 실업률 추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4	2/4	3/4
실업률(%)	3	2.6	2.2	1.9	2.5	2.8	2.5	2.7
전년차(%p)	-	-0.4	-0.4	-0.3	0.6	0.8	0.0	0.0
청년실업률(%)	6.5	5.1	5.3	4.9	6.6	7.4	5.6	6.4
전년차(%p)	4.0	-1.4	0.2	-0.4	1.7	1.9	-1.2	-0.7

자료 :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

(7) 물가부문

- 제주지역의 물가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2~4%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들어와서도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소비금액의 변동이 작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생활을 영위하는데 불안감이 작다는 의미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2000=100,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지수	100	103	105.9	109.4	113.8	115.2	116	116.4	116.8	116.5	116.3	117
전년비	2.1	3.0	2.8	3.3	4.0	3.0	3.2	2.6	3.0	2.9	2.8	2.4

자료 :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

주 : 2005년의 경우 전년동월비

4. 제주경제전망

- 2006년 제주경제는 전국 경제의 회복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산업별로 보면 농·수·축산업이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겠으며 물가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지역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서도 가계 부채 조정 진전 등으로 생활형편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
- 지역기업의 자금사정은 회복기미를 보이다가 최근 고유가로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

민생경제 실태 및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연구
-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고 철 수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민생경제 실태 및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연구*

□ 연구 목적

-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실태 및 의식 기초자료 수집
-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

□ 과업 기간

- 조사기간 : 2005년 10월 28일 ~ 10월 30일(3일간)
- 조사부수 : 620부(음식점 120, 숙박업 70, 기념품업 70, 통신업 60, 벤처업 20, 유통·판매업 120, 전문건설업 40, 여행업30, 기타자영업 90)

□ 조사 개요

1) 표본설계(Sample Design)

- (1) 모 집 단 (Population) : 제주지역 소상공인
- (2) 표본추출방법 : 업종별 무작위 추출
- (3) 표본 크기 (Sample size) : 620명
- (4) 조사 방법 : 면접원에 의한 1:1 심층개별면접
- (5)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 (6) 조사 기간 : 2005년 10월 28일 ~ 10월 30일(3일간)

* 본 조사연구는 제주도 정책개발담당관실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설문조사 내용

- 지난 1년간 경영상태, 내년도 경영상태, 영업환경 악화원인 등
-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 경영교육, 소상공인 육성관련 정책과제 등
- 금융기관 자금 차입 시 애로사항, 정부의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등
- 공공기관의 기업 활동에 대한 행정서비스 중 개선할 부문 등
- 경영활동 중 애로사항 등

□ 설문조사 분석내용

1. 조사 표본의 특성

1) 조사방법

- 본 실태조사는 2005년 10월 28일부터 30일(3일간)까지 제주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함.
-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배포·회수하는 형식임(면접원에 의한 1:1 심층개별면접).
- 총 62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함.

2) 표본의 특성

- 업종별로는 유통 및 판매업이 129개 업체로 조사대상 업체의 20.8%를 차지하며, 음식업(120개 업체) 19.4%, 숙박업(71개 업체) 11.5%, 토산품업(62개 업체) 10%, 통신업(53개 업체) 8.5%, 전문건설업(40개 업체) 6.5%, 여행업(29개 업체) 4.7%, 벤처기업(IT, BT, 26개 업체) 4.2%, 기타(90개 업체) 14.5%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남성이 331명으로 53.4%, 여성이 289명으로 46.6%를 차지함.
- 대표자 연령은 20대 이하(28명) 4.5%, 30대(135명) 21.8%, 40대(272명) 43.9%, 50대(156명) 25.2%, 60대 이상(29명) 4.7%의 분포를 보임.
- 사업 연한은 1년 이하(64개 업체) 10.3%, 2-5년(262개 업체) 42.3%, 6-10년(178개 업체) 28.7%, 11-15년(70개 업체) 11.3%, 16-20년(25개 업체) 4.0%, 21년 이상(21개 업체) 3.4%로 나타남.
- 종업원 수는 1명 이하의 업체(257개 업체) 41.5%, 2-3인의 업체(234개 업체) 37.7%, 4-5인의 업체(70개 업체) 11.3%, 6-10인의 업체(36개 업체) 5.8%, 11인 이상의 업체(23개 업체) 3.7%로 분포됨.
- 사업장 소재지별로는 제주도 소재의 업체가 317개 업체로 조사 대상 표본의 51.1%로 가장 많고, 서귀포시(117개 업체) 18.9%, 북제주군(97개 업체) 15.6%, 남제주군(89개 업체) 14.4%로 분포됨.
- 월평균 매출액이 500만원 미만인 업체가 287개 업체로 조사대상 업체의 46.3%를 차지하고, 500-1,000만원 미만의 업체가 163개 업체로 26.3%, 1,000-1,500만원 미만의 업체가 48개 업체로 7.7%, 1,500-2,000만원 미만 23개 업체로 3.7%, 2,000-5,000만원 미만 37개 업체로 6.0%, 5,000만원 이상인 업체는 28개 업체로 전체의 4.5%를 차지함.

<표 1> 조사 표본의 특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빈 도	비 율
합 계		620	100.0
업종	음식업	120	19.4
	숙박업	71	11.5
	기념품업	62	10.0
	통신업	53	8.5
	벤처업(IT, BT)	26	4.2
	유통 및 판매업	129	20.8
	전문건설업	40	6.5
	여행업	29	4.7
	기타	90	14.5
대표자 성별	남성	331	53.4
	여성	289	46.6
대표자 연령	20대	28	4.5
	30대	135	21.8
	40대	272	43.9
	50대	156	25.2
	60세 이상	29	4.7
사업 연한	1년 이하	64	10.3
	2-5년	262	42.3
	6-10년	178	28.7
	11-15년	70	11.3
	16-20년	25	4.0
	20년 이상	21	3.4
종업원 수	1인	257	41.5
	2-3인	234	37.7
	4-5인	70	11.3
	6-10인	36	5.8
	11인 이상	23	3.7
소재지	제주시	317	51.1
	서귀포시	117	18.9
	북제주군	97	15.6
	남제주군	89	14.4
월평균 매출액	500만원 미만	287	46.3
	500-1000만원 미만	163	26.3
	1000-1500만원 미만	48	7.7
	1500-2000만원 미만	23	3.7
	2000-5000만원 미만	37	6.0
	5000만원 이상	28	4.5
	무응답	34	5.5

2. 경영실태 분석

1) 경영실적

- 최근 1년간의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66.4%인 반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

<표 2> 소상공업의 경영실적

(단위 : 명, %)

구분	매우 악화	다소 악화	현재 수준	다소 개선	매우 개선	무응답	합계
빈도	159	253	170	33	4	1	620
비율	25.6	40.8	27.4	5.3	.6	.3	100.0

2) 경영실적 악화요인

-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업의 경영난의 원인을 외적 측면에서 보면 소비위축(41.5%)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업종 간 경쟁심화(20.2%), 비용 상승(12.1%), 자금부족(5.8%),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5.5%)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 소상공인들은 자사의 경영실적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IMF 이후 소상공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표 3> 경영실적 악화요인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영업간 경쟁심화	125	20.2
유가 등 비용상승	75	12.1
자금부족	36	5.8
구매패턴의 변화	34	5.5
소비위축	257	41.5
기타	35	5.6
무응답	58	9.4
합계	620	100.0

주 : 외적요인

- 기업 내부 측면에서 경영난의 원인을 복수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한 결과 이용고객의 구매액 감소가 71.9%로 가장 높고, 경영 기법의 미흡이 25.9%, 편의시설 부족이 21.7%, 상품구색 미흡이 21.0%, 시설의 노후화가 17.4% 순으로 나타남.
- 이용고객의 구매액 감소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어 제주지역 소상공업의 경영실적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업 내부적 측면에서 보면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은 경영 능력의 부족, 상품 구색 능력 부족 등 하드웨어적인 요인보다 소프트웨어적 요인이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표 4> 경영실적 악화요인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상품구색의 미흡	122	21.0
주차장 등 편의시설부족	126	21.7
시설의 노후화	101	17.4
친절 서비스 미흡	32	5.5
경영(마케팅)기법이 미흡	150	25.9
이용고객의 구매액 감소	417	71.9
인력확보 곤란	55	9.5
기 타	89	8.2
합 계	1092	188.3

주 : 복수응답

3) 향후 경영실적 현황

-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경영실적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빈도를 보면 내년도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42.1%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19.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내년도 경기회복 등 외적요인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고, 내부적 경영실적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5> 내년도 경영실적 전망

(단위 : 명, %)

구 분	매우 개선	다소 개선	현재 수준	다소 악화	매우 악화	무응답	합계
빈도	6	112	237	170	91	4	620
비율	1.0	18.1	37.2	27.4	14.7	.6	100.0

4) 경쟁력 약화요인

- 대형점포(대규모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복수응답) 자금력 부족이 37.8%, 가격 경쟁력 약화가 34.1%, 소비자의 인지도 부족 및 홍보부족이 31.9%, 제품 다양성과 쇼핑 편리성 부족이 22.4%, 경영능력 부족이 15.1%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상공업이 대형점포(대규모업체)에 비해 열악한 자금능력으로 인해 가격인하, 제품홍보, 편의시설 구축 등 경영활동 측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가 적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6> 경쟁력 약화요인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경영능력	89	15.1
쇼핑의 편리성(교통 및 부대시설 등)	132	22.4
자금력	223	37.8
가격 경쟁력	201	34.1
제품 다양성	132	22.4
시설 노후화	63	10.7
품질	18	3.1
고객과의 친밀성	59	10.0
인지도 및 홍보부족	188	31.9
기 타	28	4.7
합 계	1133	192.0

주 : 복수응답

5) 경영교육의 필요성

- 소상공인들이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싶은 분야로는 고객관리 방안이 27.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품개발 기법 21.8%, 판매 기법 15.5%, 자금관리 15.5%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마케팅 능력 부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7> 경영교육의 필요성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상품개발	135	21.8
제품진열방법	30	4.8
자금관리	96	15.5
고객관리	171	27.6
친절교육	29	4.7
판매기법	96	15.5
기 타	43	6.9
무응답	20	3.2
합 계	405	100.0

3. 경영애로 사항 분석

1) 행정정책

- 소상공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정책(복수응답)으로는 자금지원 강화가 4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세제혜택 및 조세제도의 개선 34.6%, 거래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 23.1%, 경영교육 활성화 22.5%, 법제상의 규제완화 17.7%, 금융권의 제도개선 11.8%, 행정절차의 간소화 10.8%, 인력지원체계 확립 10.6% 순을 나타남.
-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은 자금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경영교육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관심이 높음.

<표 8> 정책적 요구사항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세제혜택 및 조세제도 개선	205	34.6
자금지원	260	43.9
경영교육 활성화	133	22.5
행정절차 간소화	64	10.8
법제도상의 규제 완화	105	17.7
인력지원 체계 마련	63	10.6
전산화 설비 지원	56	9.5
거래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	137	23.1
금융권의 제도 개선	70	11.8
기타	43	7.3
합계	1136	191.9

주 : 복수응답

2) 정책자금

- 정부의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신청 서류의 복잡이 33.2%, 담보능력 부족 29.4%,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부족 29.2%, 자금배정한도의 부족 25.8%, 신용보증한도의 부족 19.7%, 지원결정의 지연과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 14.6%, 심사원의 고자세가 10.1%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상공인들은 정책자금 이용 시 복잡한 서류, 정보부족, 담보 및 신용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9>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금 배정한도 부족	143	25.8
담보 부족	163	29.4
지원결정의 장기화	81	14.6
신청서류 복잡	184	33.2
심사원의 고자세	56	10.1
신용보증 한도 부족	109	19.7
재무제표 위주로 심사	81	14.6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 부족	162	29.2
기 타	59	10.6
합 계	1038	187.4

주 : 복수응답

3) 금융기관 이용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연대보증인 요구가 41.3%로 가장 많고, 대출절차의 복잡과 지연이 35.1%, 담보능력 부족 33.6%, 대출한도의 부족 26.0%, 대출서류 과다 19.7%, 신규대출 축소 15.1%, 대출금 만기연장 곤란 9.8% 순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 이용 시 보증 및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금융자금 이용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표 10> 금융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대출한도 부족	96	15.5
대출절차의 복잡과 지연	113	18.2
연대보증인 요구	151	24.4
신규 대출 축소	38	6.1
대출서류 과다	35	5.6
대출금 만기연장 곤란	19	3.1
담보능력 부족	78	12.6
기 타	37	6.0
무응답	53	8.5
합 계	620	100.0

주 : 복수응답

4) 행정서비스

- 경영활동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이 46.4%로 가장 많고,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이 38.4%, 지원제도의 부족 34.6%, 지원 서류의 과다 21.8%, 학연 및 지연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차별화 17.0%,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11.6%순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하며, 그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11> 행정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단위 :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담당공무원의 비전문성	118	19.8
불친절성	68	11.6
복잡한 행정 절차	276	46.4
서류 과다	130	21.8
학연, 지연에 의한 행정 서비스 차별	101	17.0
지원제도 부족	206	34.6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미비	228	38.4
기 타	26	4.4
합 계	1154	193.9

5) 지원 요청 분야

- 소상공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분야에 대한 개방형 질문 결과 재정지원이 12.9%로 가장 많고, 금융대출 4.5%, 경제 활성화 4.2%, 세제해택 3.5% 순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들은 재무적 문제에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절실히 요구하는 상태임.

<표 12> 지원 요청 분야

구 분	빈 도 (명)	비 율 (%)
무응답	271	43.7
재정지원	80	12.9
대출 관련	28	4.5
경제 활성화	26	4.2
세제혜택	22	3.5
홍보 및 마케팅	19	3.1
행정서비스개선	13	2.1
규제강화	13	2.1
주차시설 확보 및 문제처리해결	10	1.6
인력확보 및 정보제공	10	1.6
관광산업활성화	10	1.6
소비시장 활성화	9	1.5
규제완화	7	1.1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지원확대	7	1.1
관광객유치	7	1.1
고객확보 및 관리	7	1.1
대형마트 규제	7	1.1
경영교육 및 문제해결	6	1.0
교육기회제공	6	1.0
시설개선	5	0.8
상품개발	4	0.6
관광상품 개발	4	0.6
도지원 확대	3	0.5
경쟁완화	3	0.5
제도개선	3	0.5
정책지원 및 정보제공	3	0.5
물류개선	2	0.3
물가안정정책마련	2	0.3
국가지원	2	0.3
문화여건확충	2	0.3
유가안정	2	0.3
지원제도	2	0.3
기 타	25	4.0
합 계	620	100.0

4. 분석결과의 시사점

소상공업의 영세성

- 제주지역 소상공업은 월평균 1,000만원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3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업체가 전체의 79.2%임.
- 따라서 자금력에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외부환경에 민감한 경영실적

- 최근 1년간 경영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66.4%이고, 2006년의 전망도 부정적(80.3%)으로 인식하고 있음.
- 경영실적의 영향요인으로 소비위축(41.5%)으로 인한 구매액 감소(복수응답 71.9%), 업종 간 경쟁심화(20.2%) 등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단기적 경기부양책 마련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 경기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여야 함.

경영능력의 부재

-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은 마케팅 능력을 포함한 전반적 경영능력이 매우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행정지원체계의 정비

-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담보를 최소화하고 신용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특별자치도 시행과 더불어 일선 행정 인력이 확대됨으로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1. 행정제도 분야

□ 자금지원 확대

-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어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쉬움. 또한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의 영세성은 담보능력 부족과 직결되어 자금 대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대해 자금난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대한 절차와 조건을 완화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제 혜택 및 조세제도의 개선

- 경영악화를 겪고 있지만 재무구조가 좋은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법인세 혹은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세금을 인하해 주는 조치가 필요함.

□ 거래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

- 5인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한 영세업체가 하청을 준 업체와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은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민생경제 실태 및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연구」 관련 설문조사 내용과 민생경제 관련 유관단체(기관)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것임.

영세업체들이 계약 관계 혹은 수주하는데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함.

□ 경영교육의 활성화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영여건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제품의 질, 가격, 시장개척, 고객관리, 홍보 등에 대한 경영마인드 제고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임.
- 글로벌 경제체제 혹은 시장경제의 지배체제 속에서 지역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영세자영업체 혹은 소상공인들도 새로운 경영전략과 프로그램을 재편하기 위해서 경영교육이 필요함.
- 제주지역의 사업체 경영여건을 고려한 경영교육 프로그램 (예컨대, 고객관리, 상품개발, 판매기법, 자금관리, 제품진열방법, 친절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제주지역에 물류유통 및 영업 마케팅에 대한 중소기업인을 위한 교육시설 및 영업 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

□ 법제상의 규제완화

- 영세자영업 혹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장입지, 도로교통, 신개축, 각종 인허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법적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인력지원체계의 확립

- 제주지역의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인력수요를 필요로 할 때 인력공급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더 나아가 인력지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특히 3D업종에 종사할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기능인 혹은 저숙련 노동자 인력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적극적 인적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창업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자금의 이용 분야

□ 신청 서류의 간소화

- 국가에서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신청인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복잡하여 이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 담보 능력의 제고

-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신청인의 담보 능력 여부가 실적 대출에 영향을 주므로 담보능력 보다는 신용에 의한 대출도 고려되어야 함.

□ 정책자금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자금이 있는데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쉽지 않아 지원 출처 혹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관련 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함.

□ 자금배정 한도의 확대

-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 규모가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인 동등한 분배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의 자금배정이 지원효과를 증대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정책자금의 개별적 지원규모를 전체적으로 증가시키든지 혹은 개별 사업체에 따른 차등적 지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실제적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지원과 창업성공율을 제고하고 있음.

□ 신용보증 조건의 완화

- 신용보증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신용보증의 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왜냐하면 신용보증에 따른 까다로운 규정이 오히려 정책자금 지원 신청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연대보증인이 직접 입회하여 보증하는 입보제도 완화
- 채권은행 확대 (제주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 수출입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 새마을금고와 협약 체결)
- 보증료 차등화 추진 (일반기업, 특별재해기업, 일반재해기업 구별시행)
- 신용보증제한업종 완화
- 재해기업특례보증제도 시행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대상 선지원 후속처리, 연중시행)

□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방법 개선

- 현재의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방법은 경영 수익성 혹은 장부상의 영업결과에 따라 하기 때문에 경기침체 상황 하에서 각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정책자금의 지원은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요청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심사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심사원의 태도 변화

- 국가 예산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의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태도 변화가 필요함. 일부 심사원들의 상담 및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경우가 없지 않음.

3. 금융기관의 이용 분야

□ 연대보증인 요구 조건의 완화

-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연대 보증인 조건 때문에 지원신청이 힘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혹은 개인 및 사업체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조건으로 대출 허용이 요구됨.

□ 대출서류 및 대출절차의 간소화

-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너무나 많은 서류 구비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업무처리 지연으로 자금 대출의 효과성을 감소시키고 있음.

□ 담보 능력 조건의 완화

- 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담보 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자금 신청자로 하여금 대출하기에 어려움을 줌. 담보능력이나 연대 보증인이 없는 대출 신청자는 자금 대출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대출한도의 확대

- 금융기관들이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는 자금규모가 적기 때문에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자금대출 신청자의 개별 신용 혹은 사업 특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서 대출규모를 확대하여 대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대출 확대

- 신규대출 규모는 대출기관의 여신 역량에 달려 있지만 신규대출을 확대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실한 소상공인 혹은 영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출금 만기 연장

- 국내 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관계로 대출금 상환 기간이 넘어 연체 이자율이 증가하면 결국 자금 압박이 더욱 심화되는 사태가 발생함.
- 따라서 대출기관은 피대출 업체 혹은 대출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대출금 만기 연장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행정서비스 제공의 확대 및 강화

□ 행정절차의 간소화 (서류 제출 등)

-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신규사업의 등록, 부지확보, 투자, 시설물 설비 및 개축, 인허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관련 민원 신청에 대한 행정적 처리 과정의 간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원제도의 홍보활동 강화

-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의 부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음.
- 영세자영업체 혹은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신문, 방송, 그리고 책자 홍보물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나가야 함.

□ 행정서비스 제공의 공정성 확보

-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각종 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가 학연, 지연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교류되는 측면이 있음.

□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 제고

-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의 효율성 혹은 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 태도가 제고되어야 함.

□ 공공기관은 제주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확대

- 제주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을 지역 중소기업에 발주할 경우 경영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됨.
- 제주지역 생산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임.

□ 전산화 설비 지원

-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혁신을 하는 일환으로 사무 전산화 설비가 필요함.
- 새로운 전산 시설 혹은 전산 프로그램의 도입은 경영 여건 및 전략에 변화를 가져와 여러 가지 비용(인건비 포함)을 줄일 뿐 만 아니라 근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함.

5. 내부 경영혁신 분야

□ 경영(마케팅)기법의 개선

-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은 경영기법 및 마케팅 전략에 관한 정규적 교육을 받지 않아서 새로운 경영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제주지역의 제주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혹은 경영지도사협회 등은 업체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경영교육, 마케팅 전략, 경영 상담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용고객의 구매 촉진

- 영세자영업체 혹은 소상공인들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이용 고객들이 상품을 많이 구매해야 하는데 그들의 구매력 증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다가 가야함.
- 현대사회에서 소비자 유형과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들은 다양한 상품을 진열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과 욕구에 맞도록 노력해야 함.

□ 주차장 및 편의시설 개선

- 이용고객 대부분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영업장 혹은 가게에 오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쇼핑문화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반 가족을 위한 놀이 방, 수유실, 쉼터, 학습시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선이 구매력 증가에 도움이 됨.

□ 시설 노후화의 획기적 개선

-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은 경영상황이 열악하고 자본력이 영세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 힘들지만 소비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음.

□ 친절 서비스 제고

-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은 친절 서비스를 생활화하여 소비자를 감동시키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친절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음.

5. 영업환경의 개선 분야

□ 소비촉진

- 국내 및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로 말미암아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로 인하여 제주지역 영세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은 경영악화를 겪고 있음.
-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의 다양한 전략들에 의해서 국내 및 지역경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 방안이 강구되어야함.

□ 업체 간 과당경쟁의 방지

- 제주지역에서도 정규직 직업군들이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아울러 조기 정년퇴직 혹은 해직 등과 같은 사회적 노동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자영업 혹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창업하는 경우가 증대함.
- 소규모 영세업 혹은 자영업체들이 급증하는데 따라 업체간 출혈 경쟁이 심화하여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함.
- 창업하는 영세업체 및 자영업을 창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경영교육을 통하여 업종의 다변화를 유도함.

□ 유가 및 물류비용의 상승 억제

- 유가 및 물류비용은 단순히 자영업 혹은 소상공인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유가 및 물가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음.
- 유가 및 물류비용에 대한 국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대책이 있지만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용, 가정용 취사 및 난방용 연료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제주지역에 꼭 필요함

□ 대형할인점 진출에 대한 적절한 규제

- 제주지역에서 영세 판매 및 유통업체들이 대자본을 앞세운 대형할인점 진출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니 진출규제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대형마트 현지 법인화를 통해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형 상가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제주지역 산업분야

□ 산업구조의 재편

- 제주지역에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 양극화된 산업구조를 균형성있게 재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1, 2, 3차 산업간에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함.
- 제2차 산업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로 말미암아 제주지역에 고용 및 취업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들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증대시켜 고용 창출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친환경 농업의 차별화 전략

- 제주지역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필요함.

- 특히 감귤의 생산과 가공을 차별화하여 고품질 밀감을 판매하기 위해 가공시설의 현대화와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제주 농산물 유통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

- 서울·경기지역에 중·소상인을 위한 유통전문가 및 공동 물류집하장 인프라 구축
- 전자상거래에 의한 직거래 유통
- 백화점 및 대형 매장 입점 운영
- 택배 및 커서비스 확대
- 제주지역에 업종별 복합물류센터 단지조성 공동물류시스템 운영
(공산품, 생필품, 농산물, 수산물, 의류, 잡화, 기타 등)
- 제주산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원확대 및 중자구입 지원 강화 (밀감, 화훼 등)

7. 민생경제 살리기 사회적 캠페인 전개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 전개

- 제주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서 ‘범도민 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캠페인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판매하는데 소비자의 의식을 전환 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사회적 캠페인은 공공기관보다는 각종 경제단체, 자생단체 및 언론사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시 지원

- 관광객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할 정도의 다양하고 흥미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 재래시장의 온라인 쇼핑몰·홈페이지 운영 지원

□ 「제주도」라는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 및 홍보활동 강화

- 제주국제공항의 각종 안내판에 일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 안내판 설치
-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일환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 및 이용 편의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세계적 축제이벤트를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민 국제축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제주에 세계적 박람회 및 전시회 유치

□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 및 추석, 설 등 명절에 선물주고 받기 운동 전개